

'K리그1 유일한 무승' 수원FC 김도균 감독 "4월 기대해달라"



수원FC 김도균 감독

이번 시즌 개막을 앞두고 K리그 1(1부) 수원FC는 다크호스로 꼽혔다. 승격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겨울이적시장을 통해 다수의 즉시전력감을 영입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예상은 빗나갔다. 6라운드까지 최하위다. 3무수원(승점 3)로 아직 승리가 없다. 1부에서 유일한 무승 팀이다. 김도균 감독은 "6경기 동안 1승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은 못했다"며 "여러모로 일이 꼬였다"고 말했다.

우선 부상자가 속출했다. 대구FC와 개막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양동현은 허벅지 뒷근육이 찢어졌다. 김 감독은 "공격쪽에 무게감을 더해줄 선수가 빠져 아쉽다"고 했다. 강원FC에서 데려온 공격형 미드필더 이영재의 부상도 장기화되고 있다. 기대가 컸던 선수들의 이탈로 김 감독의 고민은 깊어졌다.

어처구니없는 '퇴장 번복'도 수원FC를 힘들게 했다. 국가대표 수비수 박지수는 4라운드 성남FC전에서 상대 유니폼을 잡아끌었다는 이유로 레드카드를 받았지만, 대한축구협회 심판소위원회가 판정을 번복해 5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전에 출전할 수 있었다. 인천전에서도 2차례 핸드볼 반칙으로 퇴장(경고누적) 당했지만, 이 또한 심판소위원회에서 뒤집혔다. 수원FC는 연패를 당했다. 김 감독은 "우리가 초점을 맞췄던 2경기에서 오심이 나와 아쉽다"고 했다.

수원FC의 가장 큰 고민은 득점력이다. 6경기에서 겨우 4골 넣었다. 김 감독은 "실점보다는 골이 안 나는 게 더 걱정이다. 특히 기회에 비해 득점이 너무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외국인 라스는 기대에 못 미쳤다. 라스가 투입되면 기본적인 제공권 장악이나 볼 키핑이 안 될 뿐 아니라 전체 팀 플레이가 무너졌다. 김 감독은 "어중간한 스타일"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대체 자원들도 득점과는 거리가 멀었다.

김 감독은 최근 2003년생 이영준을 최전방에 세우는 교육책을 썼다. 신평고 재학생으로 준프로 계약을 맺은 그는 190cm의 큰 키로 제공권과 슈팅능력을 갖췄다. 5라운드 인천전에서 전반 45분을 소화하며 1부 역대 최연소(17세 9개월 22일) 출장 기록을 세웠고, 전북 현대전에서 선발 출전해 후반 9분까지 뛰었다. 김 감독은 "어디지만 나름 자신의 역할을 잘해준다"고 칭찬했다.

따져 휴식기의 과제는 득점력 강화다. 수원FC는 강원도 고성으로 떠나 약점을 집중적으로 보강했다. 김 감독은 "정신적으로 많이 회복됐다"며 "공격수 양동현은 다음달 초 복귀가 가능하고, 브라질 출신 빅터도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 4월부터 치고 나가겠다. 기대해달라"며 자신 있게 말했다. 수원FC는 다음달 4일 같은 승격팀인 제주 유나이티드를 홈으로 불러들인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K리그 행선지는 결정났지만...

백승호 전북행...수원과 손해배상 공방 불가피

(수원삼성)

다름슈타트와 대화 재개 이후 합의 메디컬테스트 등 세부 절차만 남아 수원, 유스 지원금 3억+알파 원해 계약 추가 보상에 합의점 못 찾

K리그 무대를 노크해온 백승호(24·다름슈타트)의 행선지가 결정됐다. 처음부터 관심을 보였고 영입 추진 사실을 숨기지 않았던 K리그1(1부) 전북 현대로 향한다.

K리그 복수 관계자들은 29일 "전북이 백승호를 영입한다. 주말을 기점으로 다름슈타트와 (중단된) 대화를 재개해 합의를 끝냈다. 메디컬테스트 등 세부 절차와 발표만 남았다"고 밝혔다.

K리그 겨울이적시장 마감은 31일로, 백승호가 이 때까지 등록을 마치면 K리그에서 뛸 수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백승호의 선수 등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이미 전북에 전달했다.

박지성 어드바이저의 추천과 김상식 감독의 요청으로 백승호 영입을 추진한 전북은 과거 백승호가 'K리그 복귀 시 형태와 방법, 시기에 상관없이 수원 삼성에 입단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협상 중지'를 결정했다. 그 후 한 달 이상 상황을 지켜본 전북은 양측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중단된 영입 작업을 다시 진행했다.



K리그 무대를 노크한 백승호의 행선지가 전북 현대로 결정됐다. 다만 복귀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 수원 삼성과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과거 FC바르셀로나로 향할 때 받은 3억 원 반납에는 서로가 동의했지만,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가대표팀으로 2019년 6월 A매치에 나선 백승호.

다만 백승호와 수원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2009년 수원 산하 유스팀인 태탄중 입학이 결정된 백승호는 이듬해 3월 FC바르셀로나(스페인) 유학 기회가 생겼다. 당시 양측은 3년간 매년 1억 원씩 지원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썼고 실제 집행됐다. 교육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돈을 영수증 처리로 정산 받는 시스템이었다.

이후 선수와 바르셀로나의 계약이 연장되고 매단고 진학이 어려워지자

2013년 초 양측은 2차 합의를 썼다. 여기에 '수원 입단 위반 시 지원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이 협상을 중지한 배경이다.

지난달 25일 백승호측과 수원은 처음 만났으나 소득이 없었고, 11일 선수 담당마저 실패한 뒤 17일 다시 마주했다. 여기서 수원 오동석 단장이 백승호 부모에게 '2가지 안'을 먼저 언급했다. 다름슈타트로 돌아가려는 제안을 거절하자 '3억 원

회수'를 꺼냈다. 손해배상의 명목인 '플러스알파'도 함께 이야기했다. 이에 백승호 부모는 "3억 원은 값지지만 추가 배상은 곤란하다"는 뜻을 전했고, 지금에 이르렀다.

별개로 수원은 이미 직·간접적 루트로 백승호 영입이 어렵다는 의중을 내비쳐왔다. 오 단장이 전북 고위층에 연락해 "영입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고, 또 다른 수원 관계자도 백승호측에 같은 내용을 이야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원은 다름슈타트에 '영입의향서'를 보낸 사실도 없다. ▲왜 한국에 돌아갔는지 ▲전북과 계약이 됐는지 등 선수 상태에 대한 문의를 했을 뿐이다. 이에 다름슈타트는 "전북과 계약되지 않았다. 수원도 영입할 수 있다"면서 이적료와 기간, 연봉 등이 포함된 공문을 요청했으나, 수원은 회신하지 않았다. 수원은 "영입을 위해 선수 정보를 요청했다"고 하나 선수 상태 문의가 '영입의향서'로 볼 근거는 없다.

한편, 수원은 26일 백승호측에 공문을 보내 '영입하기 어렵다'는 뜻과 함께 K리그 근간을 흔든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언급하며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29일 양측이 다시 만났지만 소득은 없었다. 수원이 지원금 3억 원의 법정이자율(5%)에 해당하는 금액(1억 원 이상)에 대해 거액의 추가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김천 상무 '행복축구 시즌2'...새 꿈이 영글어간다

연고 이전 확정 돼 2부 자동 강등 김태완 감독 "급하지 않게 가겠다"



김천상무 선수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맞이한 경북 상주에서의 마지막 시즌, 상무(국군체육부대)축구단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다. 2020시즌 K리그1(1부) 무대에서 13승5무9패, 승점 44를 확보하면서 4위로 마감했다. 상무 앞에는 전북 현대(승점 60), 울산 현대(승점 57), 포항 스틸러스(승점 50)가 전부였다.

사실 뒤늦게 승천 시간이었다. 시민구단 전환에 실패해 연고 이전이 확정됐고, 규정에 따라 K리그2(2부) 자동 강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딱히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서 상무는 대안했다. 어릴 적부터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 살았던 선수들은 김태완 감독을 중심으로 팔팔 뭉쳤다. 소속 팀과는 달리 일회일비하지 않고 즐겁게 축구를 했고, 높은 곳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

전은 시즌 개막 후 1승1무2패에 머물렀다. 만족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래도 지금까지 적용을 위한 시간이었다. 1부와 달리 2부는 투지와 패기가 훨씬 강조되는 인상이었다. 여기에 큰 폭으로 선수단이 불같이 되고, 코칭스태프도 개편되면서 혼란이 적지 않았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동계훈련에서도 준비하지 않은 스리백 카드를 빨리 꺼내든 것도 그래서다.

다행히 '감'을 찾았다. 리그의 특수한 환경에 거의 적응했고, 팀목에 익숙해졌다. 우수한 능력의 신병들이 여럿 입대한 것도 큰 힘이다. 구성원, 정성현, 조규성, 정현철 등 모든 포지션에 걸쳐 보강이 이뤄졌다. 부담이 덜한 FA컵에 시험 가동해 경기력도 끌어올렸다.

김 감독은 "선수들이 조금씩 적응하는 느낌이 있었다. 이렇수록 급하지 않게 해야 한다. '행복축구'는 선수들의 몫이다. 자신감을 천천히 채워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축구 원로' 박경호 선생 별세



故 박경호 원로

제1회 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아시아컵) 우승 멤버 중 유일한 생존자였던 박경호 선생이 29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고인은 1930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1946년 월남한 뒤 경신중학교에서 축구를 시작했다. 1956년부터 1958년까지 대표선수로 활약했고, 특히 1956년 홍콩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컵에 출전해 우승을 경험했다. 한국은 폴리로그로 진행된 대회 1차전에서 홍콩과 비겼지만, 이스라엘과 베트남을 연파하고 초대 대회 우승트로피를 차지했다. 1969년 모교 경희대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한양공과, 건국대, 육군사관학교, 서울대 등에서 후진 양성에 힘썼고, 축구 해설위원과 칼럼니스트 등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빈소는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31일 오전 8시30분, 장지는 국립과천선묘역이다.

김천 | 남정현 기자 choiHG2@donga.com

sports2i 스포츠투아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농구 <28일>

•2020-2021 현대모비스 KBL 팀순위

Table with 6 columns: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Lists KCC, 현대모비스, KGC, 오리온, KT, 전자랜드, 삼성, SK, DB, LG with their respective stats.

프로배구 <28일>

•도드람 2020-2021 V-리그 남자부 팀순위

Table with 7 columns: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Lists 대한항공, 우리카드, KB손해보험, OK금융그룹, 한국전력, 현대캐피탈, 삼성화재 with their respective stats.

프로골프 <29일>

•PGA TOP10

Table with 3 columns: 코랄스 푼타카나 리조트 클럽 챔피언십 최종라운드. Lists players like 데이먼(미국), 맥도웰(북아일랜드), 그리오(아일랜드), 마틴(미국) with scores.

NBA <29일>

•팀순위 동부 콘퍼런스

Table with 8 columns: 순위, 대서양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남동지구, 승, 패. Lists teams like 피닉스, 덴버, 뉴욕, 보스턴, 토론토.

•경기결과

Table with 4 columns: 팀, 점수, 팀, 점수. Lists 피닉스 vs 샬럿, 덴버 vs 포틀랜드, LAL vs 올랜도.

NHL <29일>

•경기결과

Table with 4 columns: 워싱턴, 워너, 플로리다, 뉴저지, 뉴저지, 보스턴, 내슈빌, 시카고.

아마추어 경기결과 <29일>

테니스 ●제 75회 전국 춘계 대학 테니스연맹전 겸 2021년 전국 종합 테니스대회(양구테니스파크) ●남자 단식 준결승전=최재성(울산대) 2-0 성하연(한국교통대), 추석현(순천향대) 2-0 박호민(한국교통대) ●여자 단식 준결승전=서지영(명지대) 2-0 문정(한체대), 이은지(한체대) 2-1 오은지(명지대)

경기 예고

프로야구 <30일>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시범경기

Table with 4 columns: 팀, 경기, 팀, 경기. Lists SSG vs LG, KT vs KIA, NC vs 롯데, 오후스 vs 웨이브, 카키오 vs wave, Seozn, U+ vs 투아구.

프로농구 <30일>

•2020-2021 현대모비스 KBL

Table with 3 columns: DB,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프로배구 <30일>

•도드람 2020-2021 V-리그 남자부

Table with 3 columns: 한국전력,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아마추어 경기예고 <30일>

농구 ●제 58회 춘계 전국 남녀 중고농구연맹전 해남대회 (해남, 오전 10시30분)

테니스 ●제 75회 전국 춘계 대학 테니스연맹전 겸 2021년 전국 종합 테니스대회(양구테니스파크)

오늘의 토토 <30일>

•농구 토트 매치 19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Table with 4 columns: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Lists 경기 1 at 03.30 (화) 19:00 between 원주DB vs 모비스 at 원주종합체육관.